

최병석 개인전

<바쁜 손 느린 마음 비워지는 선반>

아티스트 토크 녹취록

2018. 12. 29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최병석 : 일반적으로 작가가 글을 쓰기 이전에 짧은 만남을 몇 번 가지면서 이야기하는 방식이 아니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친구처럼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발전되는 과정을 옆에서 관찰해주실 편한 친구 같은 편한 큐레이터가 필요해서 장혜정 큐레이터에게 부탁을 했고, 이 자리에 나와주시게 되었습니다.

장혜정 : 최병석 작가님이 금호 영아티스트에 선정되셔서 금호미술관에서 전시할 때 그곳에서 재직하고 있어서 그때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었고, 그 전에는 작업만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때 작업이 재미있었지만, 서로 비슷한 이유로 그 전시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았어요. 그 이후로 자주 만나서 작업 얘기를 하게 됐고, 서울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유망예술인 전문예술인 매칭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함께 참여하고 옆에서 러닝메이트처럼 1년의 시간 동안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최병석 : 제 작업을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 실제로 제가 작업을 시작한 것은 2013년부터입니다. 저는 작업을 할 때 크게 제목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방식입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감수성이 풍부한 사냥꾼>이라는 작업을 준비해서 <숲 속 생활 연구소>라는 첫 개인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개인전은 아니지만 했던 <3인용 예술가>나 <스위치> 같은 작업이 있고, 금호미술관에서 <더 큰 물과 배>라는 전시로 작년 초에 전시를 했습니다. 작년에 <보이지 않는 컬렉션>이라는 작업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지금 여기 윌링앤딜링에서 <바쁜 손 느린 마음 비워지는 선반>이라는 세 번째 개인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이전 작업을 보여드릴게요. <감수성이 풍부한 사냥꾼>이라는 작업은 제가 작가로 데뷔하기 이전에 뭔가 작업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여지지 않고 혼자서 사냥을 하지 못하는 사냥꾼처럼 혼자 이렇게 지내는 시기의 작업입니다. 이 당시에 덧을 보고 저랑 비슷한 오브제라 생각했어요. 덧이라는 게 사냥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사냥의 미끼를 올려놓고 사냥에 한 번 쓰이지도 못하고 그대로 녹슬어서 사용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작업을 해오면서 이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주지도 못하고 발표하지도 못하고 그냥 사라져버릴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했던 작업입니다.

그리고 나서 2015년에 <숲속 생활 연구소>라는 첫 개인전을 하였는데, 그 이전에 했던 <감수성이 풍부한 사냥꾼>이란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고요, 첫 개인전이 공모로 뽑혔을 때 더이상 덧을 주제로 작업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사라

저 버린 것이죠. 저 스스로에게는 발표할 기회가 생겼으니, 어떤 것으로 첫 작업을 보여줄지 한참 고민을 했는데, 그 당시 가장 자신 있는 게 캠핑이었어요. 캠핑으로 어떻게 작업을 해 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제가 만들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가상의 숲속 생활 연구소를 만들고, 제가 가상의 숲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했었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숲속 생활 연구소> 이후에 그룹전에서 발표했던 것이 <3인용 예술가>라는 작업이에요. 첫 개인전 이후에 저에게 큰 변화가 있었는데, 결혼하고 아이가 생겼어요. 그때 작업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작업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도 제가 좋아서 하는데요. 이기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드는 생각이 남편이자, 아빠이자, 작가 세 역할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게 1인용 가내 수공업 공장이거든요. 제가 전시 기간에 여기에서 아기 신발을 만들어서 만드는 과정을 퍼포먼스로 하고, 만들어진 신발을 관객에게 판매하는 것을 전시 기간 동안 진행했어요. 작업과 삶이 연결되는 기회가 이 작업을 통해서 기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스위치>는 두 점이 있는데, 이것들은 여기에 있는 만들기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또 하면서 했던 작업이에요. 이 작업이 지금 제 작업의 형태에 많은 연관성은 없어 보이지만, 이번 작업의 기초가 되었던, 그런 생각을 하게 한 작업입니다. 그다음에 작년 초에 했던 <더 큰 물과 배>라는 개인전이었는데요. 이전에는 어떤 오브제를 만들어서 그것들이 작동되든, 기능을 가졌든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때에는 설치를 통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 당시에 제가 만든 것들이 여기 보이시는 이런 것들인데, 제가 이 당시에 고민한 것은 <3인용 예술가> 때와 흡사한 거예요. 제목에서 거의 모든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제가 총각 때는 작은 배를 타고 강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배는 그대로인데 옆에 와이프와 아기가 타는 데 주변이 강이 아니라 바다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저의 생존을 알리고 싶기도 하고, 그렇지만 잘 버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작업이었어요. 공간에서 제가 외부에 터치에 의해서 여기 보이시는 이런 등이 스스로 동작을 하면서 주변의 거울에 빛을 반사시켜서 모스 부호로 SOS 신호를 보내요. 그리고 또 반대 방에서는 똑같은 기능을 하지만 보내는 신호가 OK라는 사인인 거예요. SOS를 보내면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을 발판 삼아 작업을 할 수 있고 괜찮다고 말하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작년에 제가 집중했던 것은 <보이지 않는 컬렉션>입니다. 비가시적인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는 도구를 제작하는 데 집중했어요. 이 두 작업은 밝기에 대한 작업인데, 전시 공간에서 우리가 흰 벽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노출계를 들고 가서 조도를 체크하고, 밝기를 인식하지만 형태나 움직이는 도구나 장치로서 보여지기는 힘드니까 그것을 재현할 수 있는 것을 만든 것이 <보이지 않는 컬렉션>입니다. 바람, 전파를 수집하는 장치도 있었구요.

이번에 혜정씨랑 같이 만나서 열심히 준비를 한 <바쁜 손 느린 마음 비워지는 선반>은 저

에게 있어서 만들기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작업을 통해서 직접 보여준 적은 없었어요. 이전 작업들이 그때 주변에서 선생님들이 해주신 말씀이, 만들기가 너무 좋아서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만들기 위한 핑계처럼 보인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만들기 자체에 집중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겼어요. 제가 만들어내는 것들로 다른 이야기를 굳이 담지 않고, 그 좋아하는 만들기를 전시로 어떻게 보여줄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A, B, C, D라는 만들기를 나누지는 않았어요. 만들다 보니 중간쯤 갔을 때 나뉘기 시작했어요. A는 '머리로 만든 것', B는 '손으로 만든 것', C는 '비우기 위해 만든 것', D는 '만들어진 것을 들여다본 것' 총 네 가지로 나뉘었어요. 글 쓴 그대로예요. 머리로 만든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부터 상상하던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만들어져야 할 당위를 찾지 못했달까요. 이번 전시에서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 만들었어요.

이번 전시를 오픈하고 나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이것이 작동하는지에 관한 것이었어요. 실제로 이번에 만든 것은 전부 다 작동을 합니다. 단지 제가 이것을 작동시켜서 보여드리기 보다는 이번에는 열심히 만든 것이 도구나 장치가 아닌 조각으로 보이길 바랐어요. 전시 연결을 해서 작동되게 하지 않았어요. 기능은 다 있습니다. 보시다가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시면 답변해 드릴게요.

이거는 알람 시계인데, 사실 우리 핸드폰으로 알람 할 수 있는데, 작업하다가 5시가 되면 아들을 어린이집에 데리러 가는데, 그걸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업인데요, 이거는 보조배터리예요. 엔진으로 만든 보조배터리인데 연료를 채워서 시동을 걸면 엔진이 작동해서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A에 해당하는 예전부터 만들어보고 싶었던 것들이예요.

B는 손으로 만든 것인데, A와 B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보일 수는 있는데, 실제로 작업이 시작되는 계기가 매우 다릅니다. 손으로 만든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부터 생각했다기보다는 작업실에 있는 재료를 보면서 즉흥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작업한 것이예요. 이 경우는 'Yes, No'가 있는 월넛 나무 큐브가 있는데, 그걸 만지작거리다가 주사위를 만들까 고민하다가 떠올라서 버튼을 눌러서 작동해서 선택할 수 있는, 큰 기능은 없지만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는 것을 만들었어요. B는 그런 식으로 제작한 것이예요. 이거는 만보계 헬멧이고요. 이 경우는 사용 용도가 뭐냐면, 커터칼을 부러뜨려주는 장치예요. 커터칼을 부러뜨리다가 다칠 뻔하면서 안전하게 부러뜨려주는 기계를 만든 것이고요. 이것은 겨울에 목공용 본드가 잘어는 데 그것을 얼지 않게 해주는 보일러 장치예요.

C는 비우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A와 B를 만들고, 제가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얻은 부속, 뜯은 것들 등을 보면 버려지는 것이 많아요. 저는 물건을 쉽게 버리지 못해 쌓아두는 데, 선반 위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만들기 시작한 작업이예요. 제가 지금 앞에 보여드린 이것들 경우에는 제가 나름 비워내기 위해서 시작할 때 시도한 방법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든 것은 기능이 다 있는데, 기능이 없는 걸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힘들더라고요. 형태를 만들면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기능을 생각한 다음에 필요한 부속품을 찾고, 조합하고 그런 과정으로 작업을 하는데, 최종 형태를 생각

하기보다는, 과정 중에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였거든요. 기능을 빼버리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 지지가 않더라고요. 생각한 것이 한 개를 해체했을 때 각자 기능을 가진 부속이 있잖아요. 각자 독립적 기능은 없지만, 이것들은 합쳐졌을 때 라디오가 되는 것이에요. 다른 방향을 찾기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아서 계속 기능이 있는 것을 만들고, 드라이버도 만들어보고, 트랜스 뽑은 걸 가지고 망치를 만들기도 하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두 작업은 제가 앞에 했던 A, B, C에서는 가장 마지막 작업이에요. 만들기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을 하게 해준 작업이에요. 볼륨이 있거나 그렇지 않은데, 기능이 없는 것을 만들기를 시도하다가 기능이 있는 작업이었는데, 풍선을 불어주는 장치인데, 내용물을 다 빼버리고 껍데기만 만들기 시작했어요. 속의 기능을 빼내고 껍데기만 남기는 거였어요. 만들어진 것을 들여보는 것이에요. A, B, C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존재하는 형태가 전혀 없어요. 어디서 형태를 보고 만든게 아니고, 다 필요에 의해서 장치들이 합쳐지면서 구축된 형태인데, D에서는 존재하는 형태를 보고 기능을 뺀 껍데기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A, B, C 단계에서는 형태에 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기능에 의해서 조합되면 자연스레 형태가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형태를 찾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D를 할 때 동시에 진행한 것이 <인덱스>라는 사진 작업이에요. 기존에 했던 작업 안에서 형태를 찾아내는 것들입니다. 실제 존재하는 엔진의 패드를 보고 만든 것도 있고요. 오토바이 램프, 제가 가진 부속을 확대해서 만들기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총 50점의 만들기 작업을 이번에 선반 위에 올려서 보여드리게 되었어요. 만들기 작업 이후에 인덱스가 있습니다. 일일이 빼서 다 보기는 어렵고, 번거로우니까 여기에 제가 다 담아 왔습니다.

실제로 전시 공간에서 제 작업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전시이기에 볼 수 없는 부분도 사진 속에 존재합니다. 제가 만들기를 하고 기능에 집중했지만, 이후로 지나가면서 형태를 찾게 되고, 형태를 보는 저의 시선을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담았지만, 저의 시선을 담아서 보여드리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진을 흑백으로 한 것은 정보를 최대한 빼고 형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흑백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 개인전에 준비한 작업은 이렇게 간략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정 : 저희가 어떻게 일했는지 말씀드리면 더 많이 공감해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 전시를 준비하자고 한 게 작년 말쯤 되는데요. 바깥으로 보기에 활발하게 활동 중이신 것 같지만, 많은 고민과 위기에 봉착해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만들기라는 것에서 찾는 자유로움과 동시에 거기에 갇히는 것 같은 두 가지 느낌을 양가적으로 가지신 것 같아요. 만들기는 반드시 아니지만, 기능이라는 것이 항상 있었고, 기능이 있었던 것은 생활 속에서 특정 상황, 이야기가 있고, 어떤 기능을 생각하고, 이후에 만들기에 돌입하는 순서로 진행했어요. 생활 속에서 번뜩이는 상황이 없으니 무엇을 만들지 고민하게 되고, 반복해서 만드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이번 전시를 통해서 만들기에 대한 고민을 해소해보자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어요. 그래서 많이 만들어보자는 합의를 했어요. 바쁜 손이라는 것은, 작가의 성향이 두 가지로 나뉜다면, 내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무작정 손을 움직이면서 고민이 해소되는

성향이 있을 텐데, 저는 병석씨를 보고 두 번째 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 많이 만들어보자고 제안하게 됐어요. 그렇게 A 타입이 계속 만들어졌어요. 더 이상 만들 것이 없을 때 B 로 넘어가면서 1년 동안 순차적으로 이뤄진 작업이에요. B의 후반부쯤 갔을 때, 이 전시의 큰 주제가 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C에서는 일종의 룰을 정한 것이, 새 재료를 사지 말고 있는 것으로만 선반을 비우자는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목에도 비워지는 선반이라는 문구가 들어가게 되었고, 저와 병석씨의 바람이었어요. 그의 마음의 단단함이 느슨해지는 행위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우선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선반을 비워내고 그것을 다시 전시장으로 가져오는 형식을 갖게 됐어요.

선반이 비워지고 난 다음에는, 만들기를 통해서 최병석 작가가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나 했을 때 그것이 형태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꼭 매여있던 매듭이 풀려진 단계처럼 보였어요. 풀리는 지점을 찾았다면 그걸 놓치지 않고 계속 진행할 수 있는 힌트를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이후에 하실 작업들이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이 전시는 하나의 결과를 보여준다고보다는 전체의 과정을 보실 수 있는 전시인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다 엄청 재미있는 기능이 많이 있어서 어떤 분들은 아쉬워하기도 했어요. 각각의 이야기나 기능이 재밌는데 더 잘 만들면 되지 않겠냐. 병석씨는 만들기를 계속하시겠지만 오로지 기능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것, 형태로도 작가로서 발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태에 고민이 길을 찾은 것 맞나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A, B, C, D로 나누었지만, 전시를 살펴본다고 해서 그 스토리를 찾아보실 수는 없게 디스플레이 해놨거든요. 이유는 말씀하셨듯이 하나하나가 형태를 찾아가는 작가의 시도로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디스플레이 한 것 이거든요. 오늘 토크를 통해서만이 A, B, C, D 분류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신 거라서요.

박지훈 : 몇 가지 궁금했던 것들은 거의 다 해결이 됐어요. 이거는 작가와 윌링앤딜링에 동시에 하는 질문인데, 저는 최병석 작가를 인스타그램 둘러보기 하다가 봤어요. 누군진 모르겠지만 쩐다! 라고 생각했어요. 시각적으로. 모든 아티스트가 그렇지만 미술이라는 것이 처음에 생성시키는 에너지는 직관적이고 시각적이죠. 맨 처음에 전시를 보고 살짝 의아한 것에 설명은 잘해주신 것 같아요.

윌링앤딜링에서 전시를 한 작가들의 경우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윌링앤딜링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있던 작가들이 여기에서 전시를 할 때 힘을 좀 빼는 것 같아요. 전까지는 좀 권총에 공기를 빼버린 것 같은, 무기는 있는데 빠지지는 않는, 그런 것 같았어요. 이전에 작품들을 보았을 때 아티스트가 봤을 때 느끼는 입체적이고 설치적이고 장치적 기계들의 기본적인 저속하게 말하면 '욕망'이 있잖아요. 훨씬 더 관객을 강하게 자극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이번 전시는 내가 가진 발사되는 무기를 다 진열을 해놓고 공기를 빼버린 상태같이 느껴졌어요.

앞서 A, B, C, D로 나눠서 설명해주신 것이 친절하게 느껴졌어요. 논리적으로도 수공이 갔구

요. 그래서 의도가 이해는 됐는데, 약간 좀 끝까지 남는 여운은 뭐냐면, 저희가 가진 언어의 체계에서 문자 언어와 시각언어의 관계에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왜 저것에 호소하는 가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미술 전반에 관한 고민에 대한 거고요. 윌링앤딜링은 혼자 생각한 건데 김인선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인선 : 이 전시를 보면서 제가 최병석 작가에게도 말한 것이 금호 같은 전시를 여기서 또 보여주고 싶진 않다고 말했어요. 공간을 다루는 방식 자체가 이게 윌링앤딜링에서 반복됐을 때는 의미는 없을 것 같다. 법칙이나 태도, 개입하겠다는 방식이 작가의 주관적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 가능성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금호에서 봤을 때 몇 개가 고장 나 있었어서 정교하지 않을 거면 기능이라는 게 강조될 필요가 있을까?하는 얘기도 했구요. 다른 시도를 해보자고 제안을 했었어요.

그리고 윌링앤딜링에서 전시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도 강력하게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들은게, 장준호 작가 전시 때, 처음에 마음에 들었던 게 <벌레잡기>라는 전시였어요. 러프한 작업실에 여러 오브제를 여기저기 널어놓고 한 사람씩 초대해서 공간을 마음대로 바꿔놓는 그런 거였죠. 제가 끝부분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가니까 너무 어지러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청소를 해주고 왔어요. 전시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 재밌게 접근했다고 느껴서 초대를 했죠. 우리 공간에서 전시했을 때, 장준호 작가의 매력은 자유롭고 뭔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하는 건데, 윌링앤딜링에서는 너무 단정하고 위축되어 보인다고 말하더라구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공간이 주는 부담감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지하에서는 더 자유로웠어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보지. 그 안에서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만 살짝 이야기를 하지 작품 제작에는 터치를 안하는데, 여기에서는 작업이 단정해 지더라구요. 화이트 큐브라는 게 강해서 작가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윌링앤딜링에서는 텍스트화되는 것을 좀 잘 정리하기 위해서, 공간 자체가 주는 힘 때문일까 싶기도 해요. 자발적인 힘이 같이 나온다고 본 게, 그걸 아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 것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정리해보는 계기를 가지는 것 같기도 했어요.

박지훈 선생님도 저희와 전시를 하셨지만, 그때도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작가들이 뭔가 다른 방식의 사고를 해보고 싶어 하는 구나, 공간이 주는 분위기가 명확하구나. 태도를 바꾸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것, 그 시기에 하는 생각, 어떤 전시인지 소개하는 텍스트에 기여해 달라고 매번 요구를 하다보니까. 점점 더 본인 스스로 텍스트를 정리하지 않는 분들이 늘기는 하지만, 순전히 날 것으로 전시를 하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병석 작가의 경우에는 선반을 생각하지는 않았었어요. 처음에 계획을 들었을 때는 아카이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외국에 나가서 이런 설치 작업인데 선반을 짝 짜서 히스토리를 보여주는 전시를 보고 알려드렸었어요. 전시 보는 방법을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다. 공간을 좀 더 구조적으로 접근해보면 재밌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최병석 : 저도 이 공간에서 전시를 하기로 하고 나서, 1년도 전의 일인데요. 사실 작가가 개인전을 할 공간을 1년 전부터 알고 있는 곳이 얼마나 될까 생각했어요. 특히 저같이 시작하는 작가의 경우에는 그러기가 참 어렵죠. 1년도 더 남은 시간을 공간을 상상하며 준비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잘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런 선반 같은 구조도 인덱스 작업을 제외하고는 나름 철저하게 계획된 것이거든요. 이런 구조 위에 작품을 올리고, 최종적 모습 자체가 윌링앤딜링이라는 공간과 잘 어울리고, 최적화되어 있다고 느꼈으면 했어요.

장혜정 : 선반에 덧붙이자면, 아카이브이기도 하지만 은유적으로 상승하는 계단형이라서 작가가 계속 쌓아 올리는, 오랫동안 이 공간을 생각하며 준비를 하다 보니,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깨알 디테일이 많아요. 그냥 선반이 아니고 계단형인 것은, 작가가 탑을 쌓아 올리는 형식을 상상하며 은유한 거고, 계단형태를 생각하면서 제목도 계단 모양을 쓰자고 한 것이구요. 시간이 부족했다면 나올 수 없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윌링앤딜링이라는 공간이 작가에게 주는 영향도 있었겠지만, 마침 병석씨는 본인도 무언가를 좀 정리하고 싶었던 시기, 머리로 계획했던 것보다는 즉흥적 감각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기가 맞물려서 사이즈도 앉은 책상에서 다 만들어낼 수 있는 크기로 한정을 했어요. 그런 이유로 작아진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의 동기나 시간, 이유가 잘 맞아서 이런 형태의 작품과 전시가 나오게 됐습니다.

관객 : A, B, C, D 까지 했고, 앞으로는 D를 더 발전시킬 계획이신 건가요?

최병석 : 네 지금 현재는 계획이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최근에 관심을 가진 게 목업이라고 하시죠. 어떤 제품 디자인을 할 때 기능이 빠지고 온전히 디자인만 볼 수 있는 형태인데요. 지금 작업실은 성북구 삼선동인데 이전에 문래동에 있었어요. 거기에 목업 해주는 집이 동네에 있는데, 가보고 제가 정말 놀랐어요. 거기 만들어 놓은 것이 정확히 뭘진 모르겠는데 엄청 잘 만드셨고요. 제가 쓰는 재료가 품질이 좋은 것부터 싼 것까지 다 섞여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업에 잘 사용하지 않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MDF를 작업에 잘 쓰지는 않는데, 그걸 가지고 접착을 해서 깎아서 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게 너무 멋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멋지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나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까? 했었는데, 제가 A, B, C, D를 하는 과정에서 기능이 빠진 형태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 목업이 생각이 나더라구요. 여기 보시면 목업을 하시는 분들이 만든 방식을 훑내낸 것이 몇 개 있어요. 앞으로도, 제가 지금 D에 관심이 많기에 그쪽으로 작업을 해볼 것 같아요. 때로는 A, B, C도 나올 수는 있는데 지금은 D를 더 해보고 싶습니다.

관객 : 작년에 느낀 답답함이 좀 해소가 되셨나요?

최병석 : 만들기라는 것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 만들기 좋아하고 잘한다고 말하고 다니는데 C 정도 할 때 만드는 게 너무 싫어진 거예요. 좋아서 시작했는데 이제 싫어졌다고 말했는데, 해소되기보다는 그걸 극복해나가는 방법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만들기에 대한 고민이 해소되기보다는 닳쳤을 때 어떻게 극복되어 나가야 할지를 배운 듯해요.

관객 : 형태보다는 구조만 남아있는 것 같아서 많이 달라진 것 같진 않아서 그것들을 부를 때 어떤 단어를 쓰시는지 궁금했어요.

최병석 : 캡션에 보시면 제목이 없어요. 분류와 순서만 있어요. 저도 몇 번인지 정확히 몰라요. 저기 있는 사각형 박스는 와사비 냉장고거든요. 전 뭘 만든지 알기에 그렇게 불러요. D 타입에 오면서는 그렇긴 해요.

김인선 : D 타입 같은 경우는 기계적인 장치가 많은 거잖아요. 엔진, 라이트 이런 식으로 그런 것에서 미적 감각을 느끼는지?

최병석 : 저는 오픈 첫날, 아는 작가가 와서 말하다가 문래동에 가면 기계들이 많거든요. 육중한 기계들이 많은데, 하는 일은 사소해요. 정말 큰데 작은 크기 구멍을 뚫는다든지, 그런 걸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껴요. 기계나 금속으로 만들어진 그런 것들. 많은 분이 그런 데서 아름다움을 느끼지 않나요? 겉보다는 속을 보았을 때 좀 더 아름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박지훈 : 저는 아까 A, B, C, D 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걱정이 되었던 것이, 이제 마치 항구를 떠나는 배인데, 1, 2, 3은 안할거야 라고 할까봐 꼭 버려야 하는가요?

최병석 : 버리려고 만든 것은 아니고, 전시 형태 자체가 아카이빙이다보니 설명할 때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A, B, C, D 이렇게 나누어서 디스플레이한 것도 아니어서 그 정도의 준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저 스스로 필요했던 과정이었습니다.

김인선 : 예전 작업 중에 바람 수집 장치 이런 장치들이 있는데, 이름은 그럴싸한데 사실은 실제 작동했을 때 별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최병석 : 사실 바람 수집 장치가 뭐냐 하면은 풍력 발전기예요. 전파 수집 장치는 라디오이고요,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예요. 그런 것에서 처음엔 재미를 느꼈어요. 빛 수집 장치는 들고 있는 라이트 박스이고, 일상적인 것을 다르게 생각하고 만드는데, 그게 결국은 매우 일상적인 것이 되는 것 같아요. 바람 수집 장치라고 제가 해석해서 만들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풍력 발전기고요. 그 작업을 하면서 지금 작업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때 만든 것들이 네가 라디오를 만들고 싶었던 거지? 그게 만들고 싶어서 그걸 한거지? 그게 왜 전파, 바람, 빛을 수집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작년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작업을 하는 데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김인선 : 그냥 라이트 박스인 것 같은데 개념은 엄청난 무엇인 것처럼 빛을 수집해서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작가가 말하는 걸 따라가면서 애쓰면서 안드로이드로 상상력이 가는 거예요. 힘들기도 하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기도 했어요.

최병석 : 선생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얘기가 그때 당시에 도움이 됐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만드는 것에 개념이 들어오고 이야기가 생겨나는 게 만들기 위한 핑계 같다는 생각을 하

게 해주었어요. 그런 것들이 저를 많이 생각하게 한 것 같아요. 어떤 걸 만들어야지가 아니고, 왜 만들어야 하고, 나한테 만들기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된 출발점이 되었어요.

장혜정 : 그리고 그 시기에 만들었던 작업들이 어떤 공간이 주는 이유였을 것 같은데 불필요하게 너무 커지는 게 많았어요.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3인용 작품은 스케일이 그 기능을 다 해내기 위해 필요한 스케일 이었고, 촘촘하게 부품이 들어오고 꼼꼼하고 많이 만진 미감이 나왔다면, 바람 전파 수집 장치는 커지기 위해서 커져서 불필요하고 덜 다듬어진 부분이 노출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작품이 커지기만 하고 딱딱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작아졌을 때 모든 게 필요해 의해 만들어졌을 때 만들어지는 최병석 작가의 미감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번 전시에서는 어느 정도 그것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김인선 : 이야기를 들으니깐 지금 생각나는 것이, 그 당시 최병석 작가가 고민했던 것이 나는 당신이 만드는 게 좋은데 텍스트를 원한다. 2년 전에 개념적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것이 꼭 필요한가는 질문을 했었어요. 저는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순수하게 만들기에 집중해보라고 푸쉬했던 기억이 나네요. 현대 미술에서 텍스트화하는 것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작가들이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잘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질문하고 좌절하는데 작품 만드는 데에는 꼭 그 방법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구요. 시각적으로 이쁜 게 또 좋구요. 사람도 잘생겨야 관심이 있잖아요.

관객 : 즉흥적으로 만드는 걸 피하고 지금은 형태에 대해 고민하시고요. 뭘 해도 만드는 사람이라서 사진을 찍어도 만든다는 느낌이 들게 되는데,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공감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박지훈 : 아티스트에게는 가상의 멘토가 있으면 의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 생각하는 선생님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핑계대고 나를 변명하고. 저는 브루스 나우만이 멘토예요. 뭐 할 때마다 고민할 때마다 그 사람을 앞장세워서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런 멘토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최병석 : 어릴 때도 만들기가 좋았어요. 로봇을 만드는 과학자가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작가가 되었어요. 만들기 좋아하는 아이가 공학박사가 아니고 예술가가 되었으니 이런 걸 만드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걸 인정하는 게 쉽진 않았어요. 지금은 너무 인정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항상 하는 생각이 그래도 앞으로 수십 년은 더 작업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거든요. 40년 더 한다고 생각했을 때, 앞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장혜정 : 추운 날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